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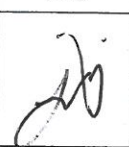




# 2021년 제14대 집행부 제3차 긴급 온라인 이사회 회의록

	담당	팀장	사무차장	이사장
결재				
	이영서	한진희	이여울	방지영

일시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10:00~11:00	작성자	이영서
장소	온라인 줌(Zoom)		
성원보고	성원 20명 중 참석 9명, 위임 9명, 불참 2명		
참석자	[이사장] 방지영 [부이사장] 김영배, 나숙경 [이사] 김대환, 신인선, 조은아(주문화콩), 조은아(주잼박스), 채정규 [사외이사] 김종선 [사무국] 이여울 사무차장, 한진희 팀장, 이영서 PD		
위임	[이사] 박주희, 정유란, 임홍석, 김석홍, 함형식 [사외이사] 김재철, 김종훈, 허성훈 [감사] 정상식		
불참	[감사] 박정용 [사외이사] 한상훈		

- 현황 보고**
- ‘축제지원사업 예산삭감 관련 예술창작정책살리기비상위원회’ 보도자료 공유 (6/2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중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서 아동청소년관련 축제 및 중견축제 다수가 심사에서 탈락함
    - 지난 예술정책을 돌아보기 위해 36개의 연극 관련단체가 연대하여 비상회의를 출범
  -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가로서 입장문’ 발표(6/24)
    - 공동성명서 발표를 기점으로 긴급 소위원회를 결성(6/23)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입장문’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발신함
    - 페이스북으로 ‘입장문’ 공유하기, 해시태그(#아시테지코리아) 달기 운동 진행

**[논 의]**

**- 방안 모색 필요**

- 심사위원의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계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명분을 정립함
- 향후 예산 삭감 사태에 대비하여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나 사회적인 기업들과 함께 축제를 진행하는 방법 모색 필요
- 이슈에 대한 가시화를 위해서 인형극 협회에서도 이사회를 진행 고려

-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방법 제시
  - 향후 가시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활동, 운동(퍼레이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극 부각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운동 및 활동 이어나가야 함
  
- SNS ‘챌린지’ 진행 가능
  - 캠페인과 같은 형태로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방법 논의 필요
  - 형태로 공연예술계의 관계자, 예술인들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파급력을 높임  
예) 주니어해양컨퍼런스 : 피켓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400명이상 참여함
  - 미션 진행의 형태로 진행(춘천인형극협회와 협력 가능)
  - 감성적 내용으로 공감을 이끌어내어 정책적으로 개정안 수립을 목표로 해야함
  - 관객 및 예술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 고민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 필요
  - 공공문화, 생활문화와 전문적인 예술분야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 가능
  -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법’ 개정 필요

## 별첨\_1. 축제지원사업 예산삭감 관련 예술창작정책살리기비상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1-01] 보도희망일 20201.6.21	배포일 2021.06.21.
	문 의 담당자 김 관(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 비상회의 간사) Tel.02-744-8056 Mobile.010-2366-4659 E-mail. <a href="mailto:kt744@hanmail.net">kt744@hanmail.net</a>
	사진 등 <a href="http://www.webhard.co.kr">www.webhard.co.kr</a> (ID- ktheater / PW- ktheater) 포스터 이미지 4종 (웹하드)
	첨부 ① 성명서 (2P)                      ②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감액추이 ③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중 심사에 탈락한 6개 단체 대표축제 ④ 서울대표공연예술제(구,지역대표공연예술제) 2021~2019 무용, 음악 포함

**다수 장르대표축제 예산탈락!**  
**지역대표축제, 상주단체 등 지역 이양 사업의 존폐,**  
**연극관련 전국 35개 단체, 예술창작정책 이대로 좋은가!**

■ 연극 대표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민간단체 공모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총 사업비 54억1천만 원)가 8억16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에서 심의의 결과를 발표한 후, 연속성을 가져야할 정통성 있는 축제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08 건이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결정된 장르대표 3건을 제외하고 총 41건이 선정되었다. 각 장르별로 보면 연극 31건 중 9건, 무용 19건 중 14건, 음악 27건 중 8건, 전통 26건 중 9건, 다원 7건 중 4건이라는 결과인데, 연극계는 연속성이었던 15년 이상 된 중견축제, 장르를 대표하던 축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등이 대거 탈락하며 존폐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심사결과의 파장은 예술위 측에서는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예술위 측에 3년 이상 된 축제의 지원을 불필요하다 지적해왔고 예술위의 설득에도 8억1600만 원이라는 예산삭감이 현실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 예산은 앞으로도 매년 약 10%의 예산이 지속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극계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축제예산의 지속 삭감 배경에는 공연축제를 선심성, 소비성 행사로 인식하는 기재부의 시각이 문제라는 공연예술계의 지적이다.

■ 이에 연극계는 발표 직후부터 전국 35개 단체의 동의로 단위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6일(수) 5단체 대표로 구성된 **예술창작정책살리기비상회의(이하 비상회의)**

## 보도자료

를 발족하였다. 비상회의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문제는 다수 축제의 심사탈락을 넘어서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몰인식'이라 정의하고 점층 삭감 예정인 축제지원정책의 철학부재는 물론 전반적인 창작지원 예산규모의 문제를 따져 나가야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문제가 되는 축제 예산은 예술위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사업과 '서울대표공연예술제'(구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같이 지역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대표적 축제가 모여 있는 서울은 이미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 중이나 중앙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고, 타 지역의 경우는 파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비상회의는 예술향유예산이 우선 시 되고 예술인의 인권, 복지 등에 가려져 창작지원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0년간 향유지원예산은 1000억 원 이상 증액된 반면 (2011년 480억 → 2021년 1,671억) 창작 지원 예산은 459억 원(11년 240억→21년 699억)이 증액되어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는 매년 소폭 증액되고 있지만 문화예술향유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예산삭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 이다. 문화예술향유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예술가들에게 체감이 없는 정책이기에 연극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을 예술진흥이라는 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향유예산은 복지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문예진흥기금의 상당을 차지하는 1,671억의 향유예산이 마치 예술가들을 위해 배정된 것 같은 불편함이기도 하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사업 역시 본 목적은 국민들의 예술향유이지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 한편 다수의 축제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운데에도 소수의 콩쿠르는 국회지정사업이라 바로 예산을 지정받은 것을 두고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 경연성적인 콩쿠르는 축제와는 구분된다는 논리인데, 이번에 탈락한 축제 중 일부는 문체부 장관상, 국무총리상이 있는 경연대회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 향후 비상회의는 장르별 대표축제의 지정사업 지정과 총 예산의 원점 회복은 물론 기 진행 중인 불합리한 창작지원예산 및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갈 계획이다.

■ 이하 성명서 원문

## 보도자료

[첨부1] <공동성명서>

# 예술창작생태계의 몰이해, 창작지원정책을 새로이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문화 비전 2030> 8대 핵심과제 중에서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유일한 1개의 창작 지원 정책 때문인가. 7개의 복지, 인권정책에 가려진 예술창작환경의 퇴보, 이제 더 지켜볼 수만은 없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8.5조, 이 중 민간예술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는 예산은 약 700억, 그 중에서도 창작을 위한 예산은 약 500억이다. 지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통축제들의 대거 탈락사태를 통해 한국의 예술가로서 이해되고 보호받지 못함에 통탄할 따름이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쫓는 정책! 철학 없는 예산의 분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한국 예술 창작지원 정책은 기재부가 주도하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축제의 몰락, 누가 미래를 책임지는가!

지난 6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공모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총사업비 54억1천만 원)가 8억16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심의/공표되었다. 연극/뮤지컬 쪽만 볼 때 장르대표이며 역사가 있는 주요 축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예비연극인을 위한 10여개의 사업이 지원에서 탈락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포함한 보조사업에 대한 감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축제를 선심성/소모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매년 약 10%예산삭감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우리 연극인들은 본 사태에 대해 예술위로부터 '기재부의 긴 설득에 실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예술위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는 무기력한 답변을 받았다.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도대체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예술창작지원정책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기는 한 것인가.

### 정부의 예술현장에 대한 인식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예술가는 창작 활동을 함으로서 예술가가 되고,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정부는 예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못하는데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초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공연축제는 국가가 마땅히 만들어 줘야할 플랫폼이며 열악한 예술시장을 지탱하고자 민간이 자구적으로 일구어낸 네트워크이다.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낭비성 사업이 아니다. 우리의 시장을 돌려 달라, 인식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 국가 예술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몇 개의 정책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첫 번째 '예술인고용보험'. 코로나로 예술 현장이 초토화된 2020년 12월 출연히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이 문제의 사업은 현장에 던져졌다. 환영해야 할 사업이라는 존재감뿐, 예술가들은 엄청난 회계업무를 덜컥 떠안았다. 두

## 보도자료

번째 '균형특별회계'관련 지방이양 된 지원사업. 지난해 '지역대표축제' 약 100억 원이 무차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2년이 채 안된 지금, 지방정부의 이해에 따라 형태가 사라져 파악조차 어려워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예술진흥정책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 번째, '상주단체사업'. 이 역시 많은 이들의 우려 속에 지방정부로 이관될 운명이다. 앞선 지방이양 예산처럼 어떻게 흩뿌려질지 알 수 없다. 이런 불안한 기운 속에 지난 6월 8일,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선정단체 발표가 났다. 예술정책 정말 이대로 좋은가.

### 예술창작지원 없는 문화강국의 자부심?

#### 선거 할 때 만 우리가 필요한가!

지역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진흥은 지리적으로 균등 배분하면 자동 발전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정책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국민들의 예술향유는 반드시 필요한 것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향유예산 1000억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지원예산이 아니다. 예술이 공공재임이 분명한데 창작물이 없는 가운데 건강한 국민의 예술향유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총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새 사업을 만들기 위해 기존 사업을 부수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기재부 경제 논리는 예술정책과 현 정부의 비전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투여하지도 않고 새것을 만들기 위해 옛것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어 달라.

### 기초예술은 모든 응용예술을 지탱하는 보고이다.

#### 예술창작지원정책을 새로이 수립하라!

우리는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대표를 대신하여 5개 단체(한국연극협회,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한국극작가협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를 필두로 6월 16일 예술창작지원정책살리기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국회와 청와대를 찾을 것이다. 예술가의 양심과 존립을 걸고 국가 예술정책을 훼손하는 문화정책에 맞설 것이다.

2021.06.21

(사)한국연극협회(강원도연극협회, 경기도연극협회, 경상남도연극협회, 경상북도연극협회, 광주연극협회, 대구연극협회, 대전연극협회, 부산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울산연극협회, 인천연극협회, 전라남도연극협회, 전라북도연극협회, 제주연극협회, 충청남도연극협회, 충청북도연극협회),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아시테지코리아), (사)무대예술전문인협회, (사)한국극작가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사)한국연출가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한국연극교육학회,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한국연극교육위원회, 한국교사연극협회,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한국교육연극학회, 월간 오늘의서울연극(TTIS), 월간 한국연극, 전국교사연극모임,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19개 단체)

[각 축제 조직위원회 ]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제29회 젊은 연극제, 제29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제28회 전국어린이연극잔치,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제19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제18회 서울아시테지겨울축제, 제15회 대학로소극장축제, 제13회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제 5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제4회 대한민국 극작엑스포

## 보도자료

### [첨부2]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감액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7,665	6,159	5,48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참조, 매년 약 10% 예산 삭감 계획

### [첨부3]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중 심사에 탈락한 6개 단체 대표축제

(단위: 백만원)

사업명	단체명	2021년 결정액	2020년 결정액	비고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사)한국연극협회	581	720	△139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0	70	△70
제18회 서울 아시테지겨울축제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0	60	△60
제15회 대학로소극장축제	(사)한국소극장협회	0	50	△50
제6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사)한국뮤지컬협회	0	350	△350
제3회 대한민국극작가엑스포	(사)한국극작가협회	0	30	△30
제29회 젊은연극제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0	30	△30
합 계				△699

## 보도자료

### [첨부4]

■ 서울대표공연예술제 (구, 지역대표공연예술제) 2021~2019

(단위: 천원)

분야	연번	사업명	2021	2020	2019	비고	
극	1	제29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130,000	145,000	145,000		
	2	대학로거리공연축제 D.FESTA	60,000	85,000	85,000		
	3	제42회 서울연극제	120,000	180,000	180,000		
	4	2021세월호	30,000	40,000	0		
무용	5	제42회 서울무용제	80,000	165,000	165,000		
	6	제24회 크리티क्स 초이스	40,000	55,000	55,000		
	7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	0	40,000		
	8	제40회 국제현대무용제 MODAFE	220,000	300,000	335,000		
	9	제35회 한국무용제전	80,000	65,000	65,000		
	10	제14회 K-Ballet World	70,000	90,000	90,000		
	11	제24회 서울무용축제(시댄스)	200,000	200,000	200,000		
	12	제 26회 참무국제공연예술제	0	300,000	0		
	음악	13	2021 세계4대 오페라축제	160,000	150,000	150,000	
		14	제38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90,000	90,000	
		15	2021서울오페라페스티벌	60,000	60,000	60,000	
16		2021서울국제음악제	100,000	115,000	80,000		
17		제7회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0	0	40,000		
18		제8회 그랜드오페라축제	50,000	50,000	40,000		
19		2019 서울아리랑페스티벌	0	0	90,000		
합계			1,400,000	1,820,000	1,910,000		

※ 서울시 발표자료 참조하여 재구성한 자료

※ ★표는 예술위 대한민국공연예술제로 지원예산을 받은 예산

## 별첨\_2.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가로서 ‘입장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창작자로서 입 장 문

1982년 설립된 아시테지 코리아(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는 세계 87개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 아시테지 15개 대표 이사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한국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 200여 단체 및 개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가 국내 공연예술창작 벨트로서 시장에 작품을 공급하고, 7월에는 ‘아시테지 국제 여름축제’가 해외 우수공연과 국내작품을 전국에 소개하고, 11월에는 전국어린이연극잔치’에서 전국 어린이들의 솔직담백한 자신의 이야기가 무대에 올라가는 등 3개의 대표축제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테지의 축제는 자타공인 관객들에게 신뢰를 받고, 아시테지 세계 네트워크가 주목하며, 역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온 축제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난 역사 속에서 관객과 예술가들의 제언을 귀에 담아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타 축제와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공연사례비에도 아이들을 만나는 행복감으로 함께 하는 공연단체와 스태프, 예술교육가 등이 있었기에 이 복잡한 살림을 이어가며 매년 새로운 층성 관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시장에 최초로 직격탄이 터졌습니다.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객석 띄어 앉기를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이곳은 모든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구두계약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민간형 축제들은 어떻게든 공연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국에 맞춘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 무지막지한 정책의 변화로 두 번째 직격탄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의 지원탈락과 예산축소, 애지중지 키운 묘목이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밝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씨였던 아동청소년공연예술 창작지원사업 5억. 이것조차 보호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왜 아이들을 위한 공연예술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서면 존중받지 못해야 하나요. 정책은 왜 특수성을 배제하고 재단하나요.

지금껏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작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지원을 해도 목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가들은 은 자비로 작품에 투자하며 소극장 안에 자신의 예술혼을 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모두의 노력으로 최초로 신설된 5억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창작 예산도 7개 장르와의 형식적 평등에 가로막혀 좌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갈림길에 서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창작방식에 관한 현장의 조언이 허무하게 꺾여 버리고 있습니다. 또 균형특별회계의 일환이라고 100억을 지역으로 분배하고, 축제는 소모적이라고 매년 10% 삭감하는 것도 정책이라 봐야하는 정책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적은 예산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것이 예술진흥의 방향은 아닙니다. 예술창작 환경의 특수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공정’을 가장한 ‘공평’이 창작의 전문성을 재단해 버린 참으로 슬픈 시대입니다.

관객 향유 국가지원정책이 탄생시킨 무료공연의 범람이 이미 전국 공연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이 정책은 일반 국민들에게 기초예술인 공연은 잘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갔고, 지역 안의 개인 프로모터가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지역재단과 문예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연예술축제는 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입니다. 예술가 상호의 소통은 물론 직접 비용을 지불한 진정한 관객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보호자의 손에 손을 잡고 자신의 선택으로 공연장을, 축제를 찾는 관객의 얼굴을 보셨다면 축제에 관한 험한 말씀 절대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신들 보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에 에너지를 얻어  
지금도 연습실에서 작품개발을 하는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를 지켜주십시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관람 경험은 병들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예측 가능한 지원정책으로 창작의 열정을 후원해 주십시오!  
보편적 일괄적 정책으로 재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2021. 6. 24.

200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단체 및 개인을 대표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국 모든 축제를 대신하여,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ASSITEJ KOREA**